

주장자파라...

② 한영 스님이 먹은 과자



조태호

하인

스님 적적하신데

과자 좀 드세요

스님 그건 오징어살을 다시마로 싸서 만든 과자일 숙이고 드렸어요

스님이 잡수신 오징어는 생선이요... 계를 범하신 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실스님의 범문을 듣고 싶습니다

저리가 아니 알부 드렸지요

응... 그래 그렇다면 계를 범한 건 너희들이지!

어? 어째서요?

어허. 이런 답답한 사람들

갓난아이 손에 지를 지를 끊는 인두를 손에 쥐어 줬으면 누가 잘못을 범했는고?

그 뜨거운 인두를 담백잡은 아기가 잘못이냐 인두인줄 알면서 손에 쥐어준 어른이 잘못이냐

대담한 범문이다

한영 스님 (1870-1948): 전북 완주 생. 위봉사에서 금산 스님에게 출가. 만해 스님과 불교유신운동 전개. 개운사 대원암 강원설립해 20년 강의한 근대 대표적 강백.

선재동자는 보적정광 주아신으로부터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희목관찰중생(喜目觀察衆生) 주아신을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만나보게 되면 한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힘차게 정진 수행해서 불도를 성취하려는 생각을 내었다.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희목관찰중생 주아신에게 나아가니 그 신은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연화장 사자 좌에 앉아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大勢力普喜幢解脫)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희목관찰 주아신은 그 몸에 있는 탐구망마다 한량없는 몸구름을 나타내게 하여 그들에게 일맞은 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몸구름을 나타내어 보살의 열(十) 바라밀과 한량없는 종류의 중생 세계의 모습 등을 보이었다. 이것은 바로 경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하나 하나가 모두 보살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십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희목관찰중생 주아신의 범문은 보살이 십바라밀로써 중생을 설화해서 그들을 성숙케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잠깐씩 시방으로 각각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국토들을 깨끗하게 하며, 한량없는 악도의 중생을 제도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인간과 천상에 나

권한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2>

희목관찰중생 주아신의 범문

십바라밀로 중생 이롭게 하는 길 밝혀

인욕·자비 행하며 기쁜 눈으로 관찰

서 부귀하고 자재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주아신의 하나 하나의 탐구명에서 무량한 변화신인과 십바라밀 등을 나타내 보인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희목관찰중생주아신이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불도수행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 중생들이 윤회하는 삼계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세간 속에 처할 때에 항상 인욕행과 자비행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아신은 비로소 일체의 선악 중생에 대해서 늘 환희하면서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적으로 행하고 일체의 선악 중생을 항상 기쁜 눈으로 관찰하면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어떻게 해서 주아신이 나타난 여러가지 희유한 일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써 주아신이 갖추고 있는 해탈을 터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경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슨 까닭인가.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법' 또는 '신'과 더불어 옛날에 함께 수행한 연고며,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한 연고며, 부사의한 선근으로 도와주는 연고며, 보살의 모든 근성을 얻은 연고며, 선지식의 힘으로 거두어 쓴 연고며, 저러한 선근이 이미 성숙한 연고며, 보현보살의 행을 뒤를 만한 연고이니라." 경문에서는 이어서 주아신의 오랜 과거 세상의 본성을 설하고 있다.

희목관찰중생 주아신의 범문을 통해서 불법을 기쁘고 진정으로 보살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아득한 과거의 생애로부터 불법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부처님의 신력의 가피를 입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면서 선근 공덕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온전한 덕행인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생활은 이러한 신념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부처님 신력의 가피와 선지식의 지도에 의해 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가던 그 거룩한 옛길을 금생에서 또 다시 걸어간다고 하는 신념이 선재동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경남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귀의(歸依)'는 그냥 의지하는 것?

문 귀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을 하는데 '귀의'의 뜻이 막연히 의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롯데뉴스 ID '신입생')

답 1: '귀의'는 믿고 따르다는 뜻의 불교 용어입니다. '귀명(歸命)'이라고도 합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귀순하여 의지하는 것으로, 훌륭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삼귀의(三歸依)로 표현되는데,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단을 믿고 따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ID '김성우')

답 2: '귀의'의 의미는 여러 경전에 나오는데요, 특히 <화엄경>에 '스스로 부처에게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은 진리를 깨달아 보리심을 낼 것이다(歸依佛), 스스로 바른 법에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이 진리의 창고에 들어 지혜가 바다같이 넓어질 것이다(歸依法), 스스로 승가에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은 화합하고 대중을 감싸안아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질 것이다(歸依僧)'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ID '송죽')

롯데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26

견성성불(見性成佛)-13

견성이라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죽이고 연기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한다'는 비유를 소개하였다. 부처와 나 사이의 분별을 포함한 모든 분별의 원천은 개별자로서의 자아(自我) 의식이니,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온갖 분별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의 박성배 교수가 또 다른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한 것이 있다(깨짐과 깨달음(예문서원)). 불교의 깨달음을 일컬어 중국에서는 '오(悟)'라든가 '각(覺)'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종(禪宗)에서는 깨친다는 말을 쓴다. 깨친다는 말은 깬 리적으로 말은 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깬다는 말은 우선 부순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 리적으로 말은 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깬다는 말은 우선 부순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 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뜻도 있다. 잠에서 깬다거나 술에 취했다가 깬다거나 깨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뜻도 우선은 무엇을 부수어 버린다. 기존의 상태가 깨져 버린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대해서 '깨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부수어지는 체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어지는 것, 깨지는 것은 한 마디로 분별심(分別心)과 아집(執)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박교수는 공안(公案) 타파(打破), 즉 공안을 깨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접어두고 기로 한다. 아무튼 요지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 달리 말하자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별심과 그 분별심을 낳는 아집 때문이고, 그것이 철저하게 부수어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으로서의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이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집과 분별심을 지닌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철저히 부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좀 아리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교리와 본각(本覺)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흔히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부수는 것을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은 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깬다는 말은 우선 부순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 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뜻도 있다. 잠에서 깬다거나 술에 취했다가 깬다거나 깨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뜻도 우선은 무엇을 부수어 버린다. 기존의 상태가 깨져 버린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대해서 '깨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부수어지는 체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어지는 것, 깨지는 것은 한 마디로 분별심(分別心)과 아집(執)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박교수는 공안(公案) 타파(打破), 즉 공안을 깨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접어두고 기로 한다. 아무튼 요지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 달리 말하자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별심과 그 분별심을 낳는 아집 때문이고, 그것이 철저하게 부수어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으로서의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이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집과 분별심을 지닌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철저히 부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좀 아리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교리와 본각(本覺)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흔히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부수는 것을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은 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깬다는 말은 우선 부순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 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뜻도 있다. 잠에서 깬다거나 술에 취했다가 깬다거나 깨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뜻도 우선은 무엇을 부수어 버린다. 기존의 상태가 깨져 버린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대해서 '깨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부수어지는 체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어지는 것, 깨지는 것은 한 마디로 분별심(分別心)과 아집(執)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박교수는 공안(公案) 타파(打破), 즉 공안을 깨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접어두고 기로 한다. 아무튼 요지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 달리 말하자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별심과 그 분별심을 낳는 아집 때문이고, 그것이 철저하게 부수어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으로서의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이다.

원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가로

1. 부처의 성품 5. 북쪽뒤에 속하여 한자어로 북(北)이라고도 함 7. 권에도 생기는 영중 8.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어 고통이 많은 9.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11. 대비로자-상불신변가(지경)의 약칭(大日經) 13. 간결한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14. 조상으로 위해 지내는 제례 15. 남을 타일러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 16. 유비, 권유, 장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중국 소설 19. 수행자들의 스승을 이르는 말 21. 뱀모를 눈으로 옮겨 삼는 일 23.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자연 24. 그림 그리는 일에 오래 참수하여 정련과 공로가 많은 사람 25. 끝없는 세월 27. 바람이 통하도록 아래에 구멍을 낸 작은 화로

세로

1. 권하지 않음 2.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 음력 12월 3일 3. 병형체가 생물체에 정착하여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증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불교의 창구서 5. 모두가 찬성하여 결합 6. 부처를 생신하며 행복을 키우는 마음의 법이라는 뜻 10. 사후에 받는 복 12. 매일경제 등 경제 전문 일간 신문 13. 화두를 근거로 공부하는 선종 17.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 18. 항공기의 안 20. 사대,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우리의 육신 등 일체 물질의 원소가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1. 절에 재물을 기부하도록 권하는 글 22. 서력 기원의 이전을 뜻함 23. 그림자가 없음 25. 아래 위 방향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

정답은 26면에